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DSME scoops \$340m newbuilding contract for LNG floating unit

대우조선해양이 미주지역 익명의 선사로부터 LNG-FSRU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선가는 약 3.4억달러이며 납기는 2023년 6월까지라고 보도됨. 특이사항으로는 발주처의 최종투자결정(FID)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FID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조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고 보도됨. (TradeWinds)

Hyundai Heavy bags double VLCC newbuilding deal

현대중공업이 최근 유럽 소재 선주사들과 300,000DWT급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총 계약금액은 2,200억 원으로 척 당 선가는 8,900만달러라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Scrubber 탑재형으로 건조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현재 전세계 VLCC 오더 북은 72척으로 전체 선대 선복량의 8% 수준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한·중, Total LR2 탱커 4척 수주경쟁

한국과 중국 조선업체들이 프랑스 Oil Major Total사가 발주하는 LNG DF(Dual-fuelled) LR2 탱커 2+2척을 두고 경합 중이라고 보도됨. 건조 입찰에는 한국의 조선3사와 대한조선, 그리고 중국의 New Times Shipbuilding, Guangzhou Shipyard International, SWS 등이 참여중이라고 보도됨. 최종 발주는 6월까지 결정될 예정으로 알려짐. (선박뉴스)

Total close to concluding \$14.4 billion funding deal for Mozambique LNG

프랑스의 슈퍼 메이저 Total사가 주도하는 Mozambique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으로 총 144억달러를 마련할 전망이다라고 보도됨. 지난 주 미국 수출입은행의 47억달러 지원 발표(현재 18억달러 추가 지원 결정)했고, 일본국제협력은행은 30억달러 정도 지원하는 등 20여개의 기관으로부터 144억달러 수준의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도됨. (Upstream)

Oil at highest since March on lower US inventories, recovering demand

국제 유가가 3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보도됨. 미국의 원유 재고량 감소, OPEC 주도의 감산, 그리고 전세계 lockdown 완화 조치로 인한 수요 회복이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됨. 8:40 GMT 7월물 기준으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36.17달러, WTI는 33.89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Upstream)

무디스, 두산밥캣 신용등급전망 하향 조정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두산밥캣의 신용등급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낮췄다고 보도됨. 무디스는 수익 감소와 부채 증가로 향후 12~18개월 동안 재무 레버리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두산그룹과 관련된 리스크 등이 등급전망 하향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함. (연합인포맥스)